

루이 하츠의 『美國의 自由主義 傳統』에 관한 소고

黃 惠 聖

〈서강대학교 史學科〉

I. 머 리 말

고전적 의미에서의 자유주의는 17세기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존 로크(John Locke), 몽테스키외(Montesquieu),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등의 사상가에 의하여 주창된 정치사상을 뜻한다. 이 정치사상은 근대초기의 '시민적 비전'(civic vision)으로부터 발전하여 결국 계몽주의자들의 합리주의로, 북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의 공화주의로 표출되었다. 더우기 시민적 비전으로부터 발전한 자유주의가 서양의 전통과 정치사상사에 영원한 이정표를 세운 것은 바로 미국의 독립혁명과 성문헌법을 통해서였다.¹⁾

역사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미국독립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상가는 존 로크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 검토될 루이 하츠(Louis Hartz)의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The Liberal Tradition in America)』은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Lockean Liberalism)'을 미국의 유일한 정치사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적인 특수한 여건에서는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에 대치되는 사상이 나타날 수 없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에 나타난 하츠의 이론을 소개, 검토하고,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의 맥락 속에서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선행作業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에 답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의 본질은 무엇인가?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과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미국 자유주의 전통의 독특한 특성은 무엇인가?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자유주의 전통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자유주의 전통은 국제 외교정책과 국내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II. 하츠의 이론 (Hartz's Thesis)

미국의 역사학은 2차 대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보였다. 2차 대전 이전의 역사가들, 즉

* 본고는 1990년 9월 21일 서울대학교 미국학 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R.N. Berki,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A Short Introduction*, 우성대역, 『정치사상사』 (백산서당, 1987) pp.177-180, 200-215.

2 美 國 學

혁신주의의 사가들(the Progressive Historians)은 개혁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 대공황, 뉴딜, 자유주의 물결로 이어지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갈등과 변화·진보의 요인을 역사의 원동력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경제적 번영의 도래와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국으로서의 역할 담당은 역사가들로 하여금 미국이 독특하고 위대한 역사를 지닌 나라임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2차 대전 이후의 역사가들(합의사가들, the Consensus Historians) 또는 신보수주의의 사가들(the Neo-Conservatives Historians)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통합적이고 단결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²⁾

루이 하츠는 합의사가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의 중요저서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은 미국 역사의 합의적인 측면을 강조한 저서이다. 이 책에서 하츠는 자유주의를 미국 역사의 주된 원동력으로 가정하고, 영국 사상가 존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이 미국으로 이입되어 ‘미국적 자유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이 발표된 후 그의 이론은 ‘Hartz’s Theory’ 또는 ‘Hartz’s Thesis’라 불리우며, 미국의 자유주의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필독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그의 논조가 지나치리만큼 편파적이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하츠는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에서 존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을 미국의 자유주의의 모태로 가정하였다. 특히 로크의 사상 중에서도 자연권 개념과 소극적 국가관은 하츠가 그의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었기에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은 그의 대표적인 정치저작 『시민정부 2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제 1편에서 로크는 가부장적인 왕권신수설을 반박하였고, 제 2편에서는 시민정부의 진정한 기원, 범위 및 목적에 관하여 논하였다. 로크의 주장에 따르면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존재이며, 옳고 그름을 판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로크의 자연상태란 자연법에 의해 지배되는 평화로운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은 神으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그중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 가장 중요한—을 부여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한편 불완전한 존재—즉 편파성, 욕정, 원한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상태는 ‘불편한’ 것이고, 그 치유책이 바로 ‘시민정부(civil government)’인 것이다.³⁾

로크에 의하면 시민정부, 즉 국가는 만인의 동의와 계약에 의하여 창설되며, “人間들이 국가를 결성하고, 자기자신을 정부의 지배하에 두는 최대의 그리고 주요 목적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다.”⁴⁾ 로크는 그의 유명한 「관용에 관한 서한(Letter Concerning Toleration)」에서 이 점을 더욱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2) 미국 역사학의 흐름(역사주의)은 Gerald N. Grob & George A. Billias, ed., *Interpretations of American History: Patterns and Perspectives* (The Free Press, 1978)을 참고하기 바람.

3) 우성대 역, 『정치 사상사』, pp.215-228.

4) Ibid., p.218.

내가 보기에 국가란 단지 시민적 관심사를 확보,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인간 사회이다... 시민적 관심사란 생명, 자유, 건강, 육체적 안락을 말한다. 그리고 돈, 토지, 주택, 가구 등과 같은 외적 사물의 소유도 이에 포함된다.⁵⁾

그러므로 사람들이 국가를 설립하는 최대의 목적은 자연권—그중 특히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하츠는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은 로크의 자연권 개념과 소극적 국가관을 미국의 자유주의의 기본 특성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을 두가지 기본 명제 위에서 기술하고 있다. 하나는 봉건주의의 부재이고, 또 하나는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의 이입이다. 미국은 처음부터 봉건제도의 경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구대륙의 나라들처럼 봉건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민주혁명을 치를 필요가 없었고, 이러한 가운데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와 ‘미국적인 자유주의(American Liberalism)’로 확고하게 뿌리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⁶⁾ 그리하여 하츠는 미국의 자유주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주의는...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이는 로크와 함께 시작되고, 변형되고...발전하였으며, 절대적으로 로크에 밀착된 것이다. 이는 전시대에 봉건주의 유산에 익숙치 않기 때문이며, 그럼으로써 후세대에 사회주의 도전에 무관심할 수 있게 되었다.⁷⁾

그러므로, 하츠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합리주의(rationalism)의 상징인 로크주의가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하여 단순한 사상으로서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미국적 생활방식(the American Way of Life)’이 되었고, 로크는 국가전체를 점합시키고 있는 구심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정치사상은 오직 자유주의 사상뿐이며, 달라 보이는 사상은 표면적인 변이로, 로크의 자유주의의 “그림자 싸움(a shadow-boxing)”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⁸⁾

봉건제도의 부재와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이라는 두가지 기본 명제 위에서 전개되는 하츠의 이론은 미국의 정치사상이 남북전쟁을 기점으로 “귀족적인 자유주의(Elitist Liberalism)”로부터 “민주적인 자유주의(Democratic Liberalism)”로 발전하였고, 그럼으로써 진정한 “미국주의(Americanism)”가 형성되었다고 논하고 있다.⁹⁾ 하츠의 주장에 따르면 남북전쟁 이전의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中心의 연방파(Federalists) 정치가들은 귀족적

5)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Intro. by W.S. Carpenter (London and New York, 1962).

6) H. Mark Clofs, *Ideology and Myth in American Politics: A Critique of a National Political Mind* (Little, Brown and Company, 1976), pp.251-254.

7) Louis Hartz, *The Liberal Tradition in America* (Harcourt, Brace & World, Inc., 1955), pp. 5-6.

8) Ibid., pp.10-11.

9) Ibid., pp.198-99.

4 美 國 學

인 자유주의자들이지만 두터운 계급의식에 기반을 둔 구대륙의 귀족계층과 다르며, 그들은 단지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과 민주당 정치가들을 급진적인 사람들로 오인한 휘그적 자유주의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는 물론 미국에는 봉건제도가 존재치 않았었기 때문에 계급의식이 존재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는 것이 하츠의 주장이다. 여기에 하츠는 결국 연방주의자들은 1840년대에 귀족적인 성향을 벗어 버리고, 자유주의를 공동이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미국에 자유주의 전통이 확고하게 확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을 첨가하고 있다.¹⁰⁾

그러나 미국 역사에서 미국의 유일한 정치사상인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이 두번 나타났다고 하츠는 지적하고 있다. 최초의 반동은 남북전쟁 이전의 남북인들의 심리상태(mentality)에서 나타났고, 또 한번은 20세기 초 사회주의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하츠는 조지 피츠허(George Fitzhugh)의 용어, “위대한 보수적 반동”, “1861년의 혁명”을 인용하며, 남북전쟁을 가리켜 일종의 “사회적 변동(Social upheaval)”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¹⁾ 그러나 하츠는 남북전쟁 직전에 남부인들이 봉건적 성향을 띠게 된것은 노예제도 옹호라는 그들의 특수한 여건 때문이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1830년경 남북인들이 제퍼슨 전통의 과거와 단절할 때 그들이 유럽의 봉건적 반동의 본질적인 면을 재생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미국 자유주의 전통의 붕괴라고 성급히 결론내리는 것은 잘못이다. 남부인들의 봉건적이고 반동적인 사고의 표면 아래에는 봉건제도가 아니라 노예제도가 있기 때문이다.¹²⁾

결국 남부인들의 반동적인 성향이 유럽의 봉건제도를 모방하는듯 보이지만, “남부 역시 민주적인 과거와 자유주의의 전통”을 지녔기 때문에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에 “상처”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하츠는 남부의 반동적인 성향이 북부의 입장에서 보면 행운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북부는 단순히 그들의 원칙[자유주의 원칙]을 [남북전쟁을 통하여] 재확인하였다. 남부에 갑자기 솟아오른 고딕식 성당을 보느라 애쓰는 대신에 북부는 애당초 그것이 세워져야만 하였던 고대의 자유로운 땅을 고수하였다.¹³⁾

남부인들의 반동적인 성향은 남북전쟁에서 패배한 후 ‘민주적 자유주의(Democratic Liberalism)’와 ‘민주적 자본주의(Democratic Capitalism)’의 물결에 묻혀버렸고 “이제 누구도 더이상 피츠허를 읽고자 하지 않는다”고 역설하며 하츠는 남북전쟁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0) Ibid., pp.14-20.

11) Ibid., p.145.

12) Ibid., pp.146-147.

13) Ibid., p.156.

한가지 분명하다. 남북전쟁의 정치 사상은 미국 자유주의 이념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힘, 활력 그리고 자유주의가 궁극적으로 미국인의 마음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로크의 틀을 깨고자 시도하였던 남부인들의 특이한 고뇌는...자유주의 이념이 지닌 힘의 시험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¹⁴⁾

하츠이론은 로크의 자유주의에 거스른 또 한번의 반동으로 20세기의 사회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1900년에 사회당(Socialist Party)를 결성하고, 1912년에 유진 데스(Eugene Debs)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할 만큼 힘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신봉하였던 막스주의(Marxism)는 계급간의 유동성이 큰 미국적 환경에서 뿌리내리지 못하였고, 결국 사회주의는 미국인들에게 “석유냄새”와 “붉은기”를 그리고 “신과 종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연상케 할 정도의 흔적만을 남겼을 뿐이라는 것이 하츠의 사회주의 반동에 대한 해석이다.¹⁵⁾ 사회주의자들 자신이 Petit-Bourgeois 였으며, 노동자들 역시 개인주의적인 기업정신에 물들어 프로레타리아의 이념에 무관심하였고, 오히려 쉽게 자본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역시 전통적인 자유주의 물결에 묻혀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츠는 또한 혁신주의자들(the Progressives)과 사회주의자들의 비교를 통하여 사회주의가 미국에 뿌리내릴 수 없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두 그룹의 비교를 토대로 하츠는 대기업의 규제에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였던 혁신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유 역시 “계급의식의 부재”에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혁신주의자들은 대기업 중심의 기업통합과 더불어, 부를 기준으로 하는 귀족계층의 등장에 의하여 개인이 지닌 자유권의 침해를 받으므로, 국가가 이를 보호, 통제하여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방법을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혁신주의자들은 봉건제도의 경험이라는 비미국적인(un-American) 서구의 개념으로 무장된 사회주의자들처럼 “유럽의 자손들”이 아니라 “미국의 자손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혁신주의 운동은 로크의 자유주의, 개인주의로의 복고를 목적으로한 개혁운동이었다고 하츠는 결론내리고 있다.¹⁶⁾

하츠의 이론 중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New Deal을 사회주의의 실패와 결부시켰다는 점이다. 즉 하츠는 뉴딜 정책자들이 마치 막스주의자들처럼 과격해 보이지만 그들 역시 미국적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닌 자들임을 주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오히려 뉴딜은 사회주의자들의 도전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상실되었던 미국 “본래의 자유로운 모습”, 즉 “사유재산과 계층간의 화합에 대한 신념, 확대된 주권(州權)에 대한 의심, 사회주의적 무드에 대한 적개심”을 지닌 모습을 찾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지니는 의미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주의가 승리하지 못하

14) Ibid., p.177.

15) Ibid., p.243.

16) Ibid., pp.228-243.

6 美 國 學

고 자유주의 전통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준 데에 있다고 하츠는 진술하였다.¹⁷⁾

끝으로 하츠는 뉴딜 이후 자유주의는 더욱 고조되어 “비합리적인 자유주의(irrational liberalism)”의 형태를 띠게 되었고, 이는 자유주의를 전파하여야 한다는 일종의 메시아니즘과 결부되어 자유주의에 대한 지나친 집착, “liberal hysteria”로 표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1차 대전과 러시아 혁명 이후부터의 미국의 외교정책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ethos로 물들었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양극화 현상은 “절대적인 미국주의(Absolute Americanism)”를 낳았다는 것이다. 하츠는 자유주의의 단일한 전통만을 지닌 미국인들은 이질적인 것과 공존하기 어렵게 되었고, 그들의 자유주의 이념이 의문시되거나, 압력을 받을 때는 극단적으로 소심해진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하츠는 흥미롭게도 1920년대의 ‘빨갱이 소동(Red Scare)’ 사건과 1950년대의 ‘매카티 선풍(McCarthyism)’ 사건을 자유주의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의해 행해진 사건들로 해석하고 있다.¹⁸⁾

미국과 세계를 함께 조명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에서 하츠는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딜레마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의 딜레마의 핵심은 미국이 사회혁명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절대적 사고[절대적 로크 자유주의]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전반적으로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¹⁹⁾

다시 말해 미국은 처음부터 “자유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국적 딜레마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수준의 의식, 비합리적 로크주의를 초월한, 그리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 역시 병행 가능한 의식”이 요청되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²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에 표현되고 있는 하츠의 이론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이 봉건제도와 계급의식의 부재라는 미국적 환경에서 미국의 유일한 정치 사상이 되었고, 이에 대치되는 사상이 나타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미국의 자유주의는 ‘비합리적인 자유주의’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츠의 이론은 1955년 발표됨과 동시에 역사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는 하츠가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의 참신함과 분석의 독창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자유주의가 지니고 있는 모순성, 자가당착적인 면모를 아이러니칼한 논조로 진술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다음장에서는 역사가들로 부터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비판을 더욱 많이 받았던 하츠

17) Ibid., pp. 259-283.

18) Ibid., pp. 284-288.

19) Ibid., p. 306.

20) Ibid., p. 308.

의 이론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하츠 이론이 지닌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하츠이론의 평가 및 의의

루이 하츠의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은 미국의 정치 전통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한 점에서, 그리고 미국 역사의 주원동력을 자유주의 전통으로 가정하고 집요하게 논리를 전개시킨 점에서 알렉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만큼이나 영향력 있는 저서라 하겠다. 그의 책은 미국을 연구하는 학문분야에서는 교과서처럼 읽히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론에 대한 역사학계의 반응은 상당히 복잡적이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하츠의 정치사상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인정하지만, 그의 이론의 내용, 분석방법, 문체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하츠의 이론을 평가함에 있어서 최소한 다음 두가지 사항은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로, 1950년대의 미국 역사학계의 분위기가 미국 사회의 통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분위기였다는 점과 둘째로, 루이 하츠는 역사가임과 동시에 정치학자였다는 점이다. 그의 문체의 난해성은 두번째 사실에 기인한다 하겠다.²¹⁾

하츠 이론에 가해지는 비판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리차드 홉스테더(Richard Hofstadter) 교수를 비롯한 여러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하츠가 이른바 “single-factor analysis”를 하였다는 비판이다.²²⁾ 즉 하츠는 미국의 역사를 오직 자유주의 사회라는 하나의 개념만으로 축소시켜서 그의 논리를 전개하였다.²³⁾ 하츠 자신도 “single-factor analysis”가 초래할 비판을 예견하였는지 그의 저서 앞부분에 “자유주의 idea가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밝히고 있다.²⁴⁾ 그러나 하츠의 이러한 지적이 결코 그가 사용한 분석의 편협성을 보완하지는 못한다. 하츠는 “ideology”를 그의 이론 분석의 주요 카테고리로 사용하여 3개의 유형의 ideologies—봉건적 반동(feudal reactionary), 부르조아적 자유주의, 혁신적 사회주의—를 미국 사상의 골자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로크의 자유주의 틀 안에서. 그러므로 하츠는 토크빌의 “미국은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이론을 극단적으로 발전시켜 모든 사상적 변이를 로크의 자유주의 틀에서 조명하고 있고, 그 결과 불행하게도 하츠는 토크빌식의 해석보다 단순한 version을 제시하였다.²⁵⁾

하츠 이론의 두번째 비판으로는 하츠가 지닌 존 로크 사상에 관한 지식의 편파성을 들 수 있다. 하츠는 그의 저서 거의 매 페이지에 미국 성격의 로크적 요인을 언급하고 있다. 그

21) Richard L. Rapson ed., *Major Interpretations of the American Past* (Meredith Corporation, 1971), pp.157-159.

22) Richard Hofstadter, *The New York Time Book Review* (Feb. 27, 1955), pp.7-34.

23) J.H. Powell, *The Saturday Review*, 38 (June 4, 1955), p.12.

24) Hartz, *The Liberal Tradition in America*, p.21.

25) Thomas Pangle, *The Spirit of Modern Republicanis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pp.25-27.

러나 정작 하츠는 로크 사상에 대한 일련의 해석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상가들의 로크사상에 대한 논의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하츠는 로크의 사상 중에서 그의 이론에 적합한 부분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적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로크의 사상 중에서 오직 자연권 개념과 소극적 국가관만을 불명료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 다른 측면을 단순히 간과해 버린 오류를 범하였다. 예를 들어 로크 사상 중에서 신학적 측면은 개인의 재산권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바²⁶⁾, 로크의 자연권 개념에 앞서 설명되어야만 한다. 더우기 로크주의의 정치적인 측면 역시 하츠가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정치사상의 핵심인 “동의(consent)”의 개념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²⁷⁾ 이에 대하여 역사가 토마스 펜글(Thomas Pangle)은 “하츠는 미국 정치적 자유주의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였고…로크의 사상을 왜곡하여 사용함으로써… 심각한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⁸⁾

하츠 이론의 세번째 약점으로 지적되는 점은 하츠가 미국 전통의 독특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봉건제도의 부재와 사회혁명의 부재를 지나치게 반복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츠는 미국이 구세계의 종교적 탄압과 봉건적 사회로부터 탈출한 사람들로 구성되기 시작하였고, 미국이 ‘혁명’을 겪은 나라임을 간과하였다.²⁹⁾ 미국은 혁명을 겪은 후 이 지구 상에서 처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화주의적인 자유를 허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봉건제도의 유물들—한사상속, 장자상속, 투표의 재산자격, 피선거인의 재산자격 등—이 점차로 철폐되었다. 그리고 교회는 국가와 분리되었고,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이상에 열거한 예들로써도 ‘미국혁명’의 혁명적인 성격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하츠는 미국 역사의 합의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을 강조한 나머지, 변화의 측면을 지나치게 도외시하였다.

하츠 이론에 대하여 보다 지엽적인 비판으로는 남북전쟁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이다.³⁰⁾ 이미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츠는 남북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발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미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남북전쟁이라는 “불길에 의한 시험”을 거침으로써 성숙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하츠는 남북전쟁 자체에 관하여 단지 “미국의 특유한 사건”, “유럽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언급하고 있을뿐이다. 남북전쟁은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과는 양립할 수 없는 노예제도, 인종주의, 식민지 시대부터 존속하여 온 지역주의, 그리고 주권(州權)주의 등 여러 요인으로부터 파생된 문

26) Calvinism은 John Locke의 종교관·국가관·재산관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Locke의 재산관은 그의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요소이며, 이는 그의 신학관과 깊이 관련된다. 로크는 神은 人間에게 이 세계를 공유물로 부여하셨고, 人間의 삶과 편의를 위해 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개인의 노동을 통한 재산의 축적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7) 우성대역, 『정치사상사』, pp.220-221.

28) Thomas Pangle, *The Spirit of Modern Republicanism*, p.27.

29) J.H. Powell, *The Saturday Review*, 38 (June 4, 1955), p.12.

30) Eric L. McKittrick, *The New Republic*, 132 (April 11, 1955), pp.22-25.

제들이 뒤엎혀 일어난 사건이었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츠는 남북전쟁 이전의 남부인들의 반동적 심리상태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 다른 요인들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 또한 남북전쟁 이전의 남부인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반동적이고 귀족적인 남부인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을 모든 남부인에게 적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남부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적어도 “지주계층(Planters)”과 “평범한 백인들(Plain Whites 또는 Ordinary Whites)”간의 성향의 차이가 보충 설명되어야 하겠다.³²⁾

하츠 이론의 또다른 약점 또는 부족한 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그의 논조가 미국 혁명으로부터 현재로 올라감에 따라 정치철학으로 바뀌어 갔고, 이 또한 유럽 정치사상가들의 어휘를 빌어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³³⁾ 지나친 정치 사상적 측면의 강조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정치사상 사이의 상관관계를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이 “유산계급자들의 이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로크 자신이 『시민정부 2론』에서 재산 소유자만을 국가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빈곤하고 무지한 대중을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다.³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에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을 오직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일은 위험하다 하겠다.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의 경제적인 핵심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자유경쟁 체제이다. 그렇다면 로크사상에 기반을 둔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이 적용되는 시기는 식민지 시대부터 19세기 말, 즉 산업화에 따른 제반문제들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라 하겠다. 다시 말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한을 사회정의나 공익보다 중요시하여온 전통은 미국사회 성격이 농촌사회에서 산업·도시사회로 바뀌면서 적용하기 어려워졌다.³⁵⁾

미국의 경제는 19세기말에 산업혁명을 거치며 “통계학자들이 놀랄만큼”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물질적 번영은 부수적으로 소득 불균형, 빈민자의 급증, 소수 독점 자본가들의 횡포 등의 심각한 문제를 수반하였고 19세기 말의 미국은 더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가 열려져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나타난 포퓰리즘(Populism)과 혁신주의 운동(Progressive Movement)은 소수 특권계층의 횡포에 대항하여 개인의 권익을

31) 남북전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연구는 무수히 많다. 그 중 하나를 추천한다면 David M. Potter, *The Impending Crisis: 1848~1861* (Harper Torchbook, 1976)이다. 이 책에서 Potter는 남북전쟁의 주요 요인의 하나로서 남부인들의 “unsecure feeling”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남부와 북부간의 ‘힘의 균형’의 깨짐은 남부인들로 하여금 ‘불안한 심리상태’를 갖게 하였다고 Potter는 진술하였다.

32) 근자에 출간된 남부에 관한 연구서는 남부인들 사이에 존재하였던 다양성을 인정하고, White Elites(Masters)와 Plain Whites(Poor Whites)를 구분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Poor Whites에 대한 연구는 요즈음 활기를 띠고 있다.

33) Eric L. McKittrick, *The New Republic*, 132, pp.23-25.

34) 로크는 현실세계에서 합리적이고 근면한 사람이 성공하고 게으른 사람보다 더 큰 몫의 보상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로크는 차별적 인간관을 지녔고 개인적 불평등을 인정하였다.

35) Arthur A. Ekirch, Jr., *The Decline of American Liberalism* (Atheneum, N.Y., 1967), preface.

옹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개입을 요구한 운동으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제 로크의 고전적 자유주의가 의미하는 소극적 국가는 공익과 사회복지라는 이름하에 사라져 갔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아더 에커크(Arthur A. Ekirch Jr.)는 “현대의 자유주의는 점차로 군중(the mass), 그룹, 그리고 대규모의 조직과, 그들이 지닌 특권과 권한으로 인지되고 있으며…사회적, 경제적 안정이라는 목적하에 개인이 지닌 자연권이 부식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⁶⁾ 에커크의 지적은 로크의 고전적 자유주의 정치사상이 몰락, 또는 변질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츠는 이러한 변질된 자유주의를 “비합리적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소심증” 등의 새로운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으나,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정치사상의 변화라는 측면은 도외시하였다.

하츠의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은 미국 자유주의의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속성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미국 역사를 되돌아 보면 자유, 민주주의의 물결에 편승하지 못한 소수인종들이 있었다. 그 예로서 17세기 뉴잉글랜드 식민지의 ‘이교도들’(비성도들)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청교도들이 ‘선택함을 받은 자’로서 사회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할 때 반하여 투표권조차 지니지 못한 불완전한 시민의 위치에 머물러야 하였다. 또 다른 예로서, 인디언들 역시 로크의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의 구호 아래 행하여진 국토의 확장은 인디언들과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인디언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는 ‘민주주의의 확장이 신이 미국인들에게 부여한 사명’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의심케 한다. 일찌기 토크빌은 미국 인디언들의 운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그렇게 치안유지가 잘 돼있고, 그토록 자선적이고 절감은 미국 사회의 한가운데에 그 나라 원주민에 관한 문제에서는 냉정한 이기심과 완전한 무감각이 만연해 있다.…그들은 날마다 스스로에게 이곳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말한다. 인디언 종족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연기시킬 수도 없는 파멸의 운명이로 빠질 운명에 처해있다.³⁷⁾

그러나 어떤 소수인종들 보다는도 미국 사회의 자유화, 민주화 물결에서 완전히 제외된 인종은 흑인이었다. 노예제도가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에 존속되었다는 일부 역사가들의 주장³⁸⁾도, 증가하는 흑인의 수에 심리적으 불안한 백인들이 흑인들의 야수성을 제도로서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노예제도를 옹호하였다는 주장³⁹⁾도 흑인으로부터 자유와 법

36) Ibid., preface.

37)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n*.

38) 노예제도의 경제수익성에 관한 연구로는 Alfred H. Conrad and John R. Meyer, “The Economics of Slavery in the Ante-Bellum Sou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Lxvi (April, 1958), pp. 95-130; Robert W. Fogel and Stanley L. Engerman, “The Economics of Slavery,” in Fogel and Engerman, *The Reinterpretation of American Economic History*, pp. 311-341가 대표적이다.

39) 노예제도의 옹호에 있어서 인구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저서의 한 예로 Idus A. Newby, *The South: A Histor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8)를 들 수 있다.

적인 권한을 박탈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정책과 태도는 로크의 자유주의의 기본명제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미국 자유주의가 백인들의 전용물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유주의에 대한 지나친 집착때문에 행하여졌다고 설명되고 있는 1920년대의 ‘빨갱이 소동’과 1950년대의 ‘매카티선풍’ 역시 미국 자유주의의 배타적인 성격을 보여 주는 사건들이다. 이 두 사건은 어떠한 각도에서 보아도 ‘비로크적’이고 ‘비민주적’인 사건들이다. 미국사회에서 공산주의는 흑색 피부빛만큼이나 이질적인 요인으로 간주되었고, 비이성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정치에 투사되는 자유주의는 다원주의적(pluralistic) 이미지를 갖는다. 그러므로 다양성은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한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⁴⁰⁾ 그러나 하츠는 그의 저서에서 변화와 다양성을 도의시함으로써 “무서운 단순주의자들”⁴¹⁾의 카테고리에 갇히게 되었다. 하츠는 미국사회가 다양한 인종의 혼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나라임을 간과하고 미국의 전통을 지나치게 단순, 획일화시켰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하츠가 미국 자유주의의 배타성, 다양성, 자기중심적 성격을 무시하고 합의적 측면만을 강조한 저의는 무엇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역시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이 출판된 1950년대의 분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국제적 위기와 대립되는 이념체제들의 대결은 특히 국민적 통일성과 가치에 대한 자의식을 불러 일으켰고, 전쟁과 전후 상황은 미국이 확실히 특별한 사명을 띠고 있으며 미국의 정신과 특성은 세계를 파시즘에서 회복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신념을 갖게 하였다. 이로써 미국의 통일된 전통을 연구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었고, 하츠는 그러한 요청에 부응하는 저서를 남긴 것이다.

끝으로 하츠의 문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개념적이어서 그의 책을 읽는 일은 “잠을 깨우는 악몽(a waking nightmare)”과 같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⁴²⁾ 하츠는 스스로 고안한 수많은 “-ism”들을 설명없이 사용하고 있어, 독창적이기는 하나, 읽는 이로 하여금 부담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특히 ‘봉건주의’는 ‘자유주의’만큼이나 내용이 광범위하고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하츠는 전편에 걸쳐 ‘봉건주의’를 정확한 정의나 설명없이 사용하고 있다(그의 논조로 미루어 보아 봉건주의는 계급의식에 기반을 둔 귀족주의를 의미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하츠의 추상적 문체와 ideology 중심의 서술은 역사학자 Anrienne Koch의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40) Kenneth M. Dolbeare & Patricia Dolbeare, *American Ideologies*, 3rd. ed.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78), pp. 38-42.

41) Daniel Bell은 『이테올로기의 종언』에서 1950년대의 신보수주의 사가들(또는 합의 사가들)이 ideology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비판. 그들을 “무서운 단순주의자들” 또는 “단순히 이테올로기라는 자동판매기에서 미리 마련된 공식들을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칭하였다.

42) Stuart Gerry Brown, *Ethics*, 65 (July 1955), pp. 313-314.

그의 글은 기본 사료의 분석이 아니라 그의 역사적인 영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멋대로 선택한 정치 사상가들 이름의 나열이다. 그 이름이 미국인의 것이면 그의 사상은 봉건적 경험의 부채로부터 설명되고, 유럽인의 것이면 봉건제도의 경험으로부터 설명되고 있다.⁴³⁾

결론적으로 하츠는 미국적인 경험을 유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다루었으며, “자유주의 사회”를 그의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의 자유주의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유럽의 사상가들의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유럽과의 상관관계를 찾으려 하였다. 그리하여 하츠가 내린 결론은 미국의 로크주의는 “비합리적”이고, 미국의 사상은 철학적 활동속에서 ‘자유주의’ 하나로 귀결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유럽과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지적한 것은 하츠 이전의 학자들이 찾으려 하였던 수없이 긍정적인 상관관계에 비하여 볼때 일진보 한 것이라 하겠다.⁴⁴⁾

그러나 하츠가 내린 결론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그의 주제는 정치이론이지만 과연 사상과 철학 자체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말하여 주는가? 유럽의 사상의 카테고리는 미국적 경험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것일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역사가 콜링우드는 역사를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로 분류하고 있다. 내적 역사는 인간의 식의 역사를 의미하며, 외적 역사는 사건들, 인물들, 제도들로 이루어진 객관적인 역사를 의미한다. 더우기 역사에 대한 이해는 이 두개의 역사가 종합적으로 이해될 때 가능하다. 만약 하츠의 이데올로기 중심의 역사 서술이 구체적인 역사 사건과 사실, 그리고 사회학적 지식으로 보완된다면 그의 이론은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리라 생각된다.

IV. 맺 음 말

루이 하츠의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은 “교조주의적이고, 도전적이고, 과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유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지고 있다. 하츠는 미국의 정치사상의 기원을 독창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하츠이론의 중요성은 그 내용보다는 미국 역사학에 끼친 거대한 영향력에 있다고 하겠다. 그의 이론이 발표되자 저명한 역사가들은 즉각적인 논평을 가하였다. 그 중에는 리차드 호프스테터, 에릭 골드만, 스투어트 브라운 등의 유명한 역사가들이 있고, 그들은 대체로 하츠의 이론에 대해서 신중하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츠의 이론이 지닌 의의는 개인의 자유가 nationalism과 전쟁에 의해 위협받고, 국가와 기업의 손에 더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개인의 의미가 상실되어 가는 오늘날 개인의 자유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

43) Adrienne Koch, *The Mississippi Valley Historical Review* 42 (Dec. 1955), pp.550-552.

44) Eric L. McKittrick, *The New Republic*, 132 (April 11, 1955), pp.22-25.

기하는데 있다 하겠다.

오늘날 일반 복지를 위하여 행사되는 정치적 행위는 긍정적인 것이라는 big government 정치 철학은 큰 이익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미국은 다수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보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개인 권리의 침해를 복지국가의 이점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고전적인 의미의 개인의 자유가 복지국가와 사회가 보장하는 물질적 안정감과 교환되는 과정에서 인간성 상실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즈만은 『외로운 군중(The Lonely Crowd)』에서 개인이라는 존재는 군중 속에서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전통적인 자유와 소극적 정부는 점차 소원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⁵⁾ 이제 구태의연한 보수적인 사람들만이 가끔씩 로크적 자유주의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라는 개념은 매 세대마다 재해석되어야 하고,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는 에커크의 주장은 타당하며,⁴⁶⁾ 이성과 역사 성찰 의식을 요구하는 William H. White Jr.의 다음과 같은 경고에 귀기울여야만 한다.

명백한 독재와 싸우는 일은 쉽다. 그러나 자비와 싸우는 일은 쉽지 않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전적으로 동일하다는 생각만큼 개인의 방어능력을 앗아가는데 적합한 방법이 없다. 좋은 사회란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가장 잘 조화되는 사회를 말한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의 이익은 완벽하게 동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직(The Organization)으로 하여금 심판자가 되도록 허락하는 사람은 마침내 자신을 희생하게 된다.⁴⁷⁾

45) David Riesman, *The Lonely Crowd*, 3rd. ed. (Yale University Press, 1961).

46) Arthur A. Ekirch Jr., *The Decline of American Liberalism*.

47) William H. White Jr., *The Organization Man*.